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조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03호 [루체 제25081호] 주제 104 (2015)년 10월 30일 (금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 따라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

주제 104 (2015)년 10월 30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소집할데 대하여

지금 전당, 전군, 전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조선로동당 창건 일흔돐을 강성번영하는 선군조선의 혁명적 대경사로 빛내이고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위력을 만방에 떨친 승리자의 기세드높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총공격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존엄높은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 계승성이 확고히 보장된 주체의 혁명적당,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되였으며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장장 70성상에 걸치는 장구한 기간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로선과 원칙을 백년대계의 전략으로 틀어쥐고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여 우리 인민을 존엄높은 자주적인민으로, 혁명의 위력한 주체로 키우고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상을 실현하는

주체의 사회주의를 건설하였으며 세기를 이어 계속된 제국주의와의 대결전에서 승리의 전통을 새기며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 혁명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고 이 땅우에 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하였다.

오늘 우리앞에는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영원한 지도적지침으로 틀어쥐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일대양양을 일으키며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고 그 령도적역할을 높여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할 무겁고도 성스러운 혁명임무가 나서고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수행에서 세기적인 변혁이 일어나고있는 우리 당과 혁명발전의 요구를 반영하여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주제 105(2016)년 5월초에 소집할것을 결정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나라에서 보도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여러 단위에 모시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여러 단위에 모시였다.
모자이크벽화《위대한 내 나라, 내 조국이여 천만년 무궁 번영하여라!》가 광택베이핑공장에서 모시는 사업에 지성을 다 바치고 꾸린 공장을 전국적인 생활문화의 본보기단위로 내세워 주시었으며 새 품종의 베이핑을 많이 생산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내주도록 손꼽아 이끌어온 김일성동지께서는 공장을 여러 차례 현지지도하시며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고 설비관리를 잘하여 생산을 정상화함에 대한 문제, 로동자들에 대한 후방방금사업과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는 사

업을 잘하는데 대한 문제 등 광장 관리운영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모자이크벽화《위대한 내 나라, 내 조국이여 천만년 무궁 번영하여라!》가 광택베이핑공장에서 모시는 사업에 지성을 다 바치고 꾸린 공장을 전국적인 생활문화의 본보기단위로 내세워 주시었으며 새 품종의 베이핑을 많이 생산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내주도록 손꼽아 이끌어온 김일성동지께서는 공장을 여러 차례 현지지도하시며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고 설비관리를 잘하여 생산을 정상화함에 대한 문제, 로동자들에 대한 후방방금사업과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는 사

김정일대원수님 회고

배닌사회주의당 위원회 결성

김정일대원수회고 배닌사회주의당 위원회 결성식이 20일 괴고누에서 진행되었다.
결성식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배닌사회주의당 위원장 알리후두는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실화발전시키시여 조선로동당의 지도적 지침을 마련해주시었으며 조선

한 반사회주의공세, 대조선압살책 등에 맞서 선군의 가치를 더 높여 드시고 나라의 군력을

백방으로 다지심으로써 전쟁의 비극으로 충돌해온 혼란의 한평생이 불러올 것을 물어내고 조선민족의 운명을 지켜주시였다. 그이께서

배닌사회주의당 부위원장 앤그리스 헤이스팅스 맹은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지난 세기 말엽 제국주의연합세력의 극단

결성식에서는 회고위원회

위원장, 서기장으로 알리 후두와 아그바훈죠 쥬스탱이 선출되었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널리 소개·전개하기 위한 정치문화행사를

개선전하기 위한 정치문화행사를 의의있게 조직하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영원한 생명력을 지니고 대를 이어 올려퍼지리

명곡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창작에 깃든 비범한 정도의 손길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시고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성대히 경축한 당창건 70돐의 환희와 격정은 지금도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생생하다.

조선로동당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안고 당파 생사운명을 갈아타며 고난의 천만산악들을 넘어온 70성상에 대한 궁지높은 추억과 위대한 당을 따라 영원히 영광님의 혁명의 걸을 끝까지 걸어갈 신념의 맹세가 노래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의 선율이 솔직스러운 당시기 풍물로 뛰워리는 10월명절의 하늘땅을 진갈하였다.

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에서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우리 군대와 인민이 열광적으로 터뜨린 만세의 환호성은 그대로 노래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의 장중한 선율이었다. 이 노래는 10월의 경축의 밤하늘을 뜻깊게 장식한 청년전위들의 불러는 세상마다에서도, 대성황리에 진행된 조선로동당창건 70돐 경축 1·5만평대 공연무대와 국보적인 예술단체들의 경축공연무대에서도 힘차게 울리며 위대한 당을 따라 이 세상 끝까지 걸어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온 세상에 파시하였다.

가장 어렵고 존엄하였던 시기에도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의의 신념을 끌어안은 노래로 『우리 당의 당기와도 같은 노래』로 격찬속에 불리우는 이 노래는 벌써 오래전에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명도의 손길에 의하여 시대의 명곡으로, 기념비적걸작으로 창작완성되게 되었다.

온 나라가 당제 6차대회를 성대히 경축한 기쁨과 크나큰 격정에 넘쳐 있던 주제 6(1980)년 12월 말이었다.

위대한 장군님은 당대 회주석단에 높이 모시고 진행한 당제 6차대회를 통하여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근본문제가 해결되고 그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었음을 만천하에 시원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에 넘쳐 날로 빛날마다 힘차게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노래는 결코 어느 한 창작가나 창작집단에 의하여 세상에 파시하였다.

『노래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는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 좋은 노래입니다.』

당창건 70돐을 앞둔 지난 9월 어느 날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노래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는 좋은 노래라고 하시면서 이 노래에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가려는 충정의 한마음으로 가슴 불태우던 당의 기초축성시기 일꾼들의 정신세계가 반영되어있다고 참으로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노래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에 뮤탈리에 애뜻한 정을 품고자 신경에 하는 원수님께서는 다음날에도 일군들과 자리와 같이 허시고 이 노래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 노래는 가사에서 토하나 고치지 않고도 영원히 부를수 있는 노래라고 또다시 높이 평가하였다.

그이의 말씀을 받아안는 일군들의 가슴속에서는 저도모르게 수십년전에 창작된 노래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의 선율이 승용히 울리었다.

저 멀리 험한 평을 넘어 걸어온 길 그 얼마

우리 서로 뜻을 같이하고 혁명의 끝을 왔어야

영광님의 길을 걸어도 준엄한 길 걸는다 해도

당중앙 따라서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

얼마나 감동깊은 사연이 이 기념비적명곡에 소중히 깃들어있는 것인가.

노래를 펼쳐 보면 이 노래에도 작곡자와 작곡가의 이름이 밝혀져 있다. 하지만 이 노래는 결코 어느 한 창작가나 창작집단에 의하여 세상에 파시되었다.

그의 이러한 실정을 험한 혁명위업을 끌끌이 험한 노래로써 노래를 쓰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민수대에 술단에서 창작된 노래라고 할 수 있게 독립적인 노래로 잘 만들어볼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친히 주시는 노래를 받아안은 작곡가의 영광은 이를 끝까지 밝혀져 있다. 하지만 이 노래는 결코 어느 한 창작가나 창작집단에 의하여 세상에 파시되었다.

노래를 펼쳐 보면 이 노래에도 작곡자와 작곡가의 이름이 밝혀져 있다. 하지만 이 노래는 결코 어느 한 창작가나 창작집단에 의하여 세상에 파시하였다.

『주체혁명의 진증길』에 기발이 되고 나팔이 뛸 노래』로, 『우리 당의 당기와도 같은 노래』로 격찬속에 불리우는 이 노래는 벌써 오래전에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명도의 손길에 의하여 시대의 명곡으로, 기념비적걸작으로 창작완성되게 되었다.

온 나라가 당제 6차대회를 성대히 경축한 기쁨과 크나큰 격정에 넘쳐 있던 주제 6(1980)년 12월 말이었다.

위대한 장군님은 당대 회주석단에 높이 모시고 진행한 당제 6차대회를 통하여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근본문제가 해결되고 그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었음을 만천하에 시원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에 넘쳐 날로 빛날마다 힘차게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노래는 결코 어느 한 창작가나 창작집단에 의하여 세상에 파시되었다.

작곡가는 즉시에 낮에 밤을 이어 긴장한 창작전투를 벌리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러한 그를 도와주고자 신체의 세가 기습에 안겨와 저도모르게 눈물이 흘러드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솔로 노래로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는 선율도 좋고 가사도 잘 썼다고, 그런 데 자신께서 노래에 대한 평가를 인자 내리지 않고 몇 달 끈것은 좋은 노래

일수록 더 좋게 만들고 싶은 욕심에 서였다고 하시였다. 그러면서 그동안 자신께서 불러도 보다 다른 악단에 곡을 주어 편곡형상한 것을 들려보기도 했는데 확실히 노래가 좋다고 하시는 것이었다.

작곡가는 가요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를 위해 기울이신 그의 크나큰 신실한 세계가 가슴에 안겨와 저도모르게 눈물이 흘러드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솔로 노래로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는 선율도 좋고 가사도 잘 썼다고, 그런 데 자신께서 노래에 대한 평가를 인자 내리지 않고 몇 달 끈것은 좋은 노래

일수록 더 좋게 만들고 싶은 욕심에 서였다고 하시였다. 그러면서 그동안 자신께서 불러도 보다 다른 악단에 곡을 주어 편곡형상한 것을 들려보기도 했는데 확실히 노래가 좋았다고 하시는 것이었다.

작곡가는 가요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를 위해 기울이신 그의 크나큰 신실한 세계가 가슴에 안겨와 저도모르게 눈물이 흘러드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솔로 노래로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는 선율도 좋고 가사도 잘 썼다고, 그런 데 자신께서 노래에 대한 평가를 인자 내리지 않고 몇 달 끈것은 좋은 노래

일수록 더 좋게 만들고 싶은 욕심에 서였다고 하시였다. 그러면서 그동안 자신께서 불러도 보다 다른 악단에 곡을 주어 편곡형상한 것을 들려보기도 했는데 확실히 노래가 좋았다고 하시는 것이었다.

작곡가는 가요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를 위해 기울이신 그의 크나큰 신실한 세계가 가슴에 안겨와 저도모르게 눈물이 흘러드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솔로 노래로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는 선율도 좋고 가사도 잘 썼다고, 그런 데 자신께서 노래에 대한 평가를 인자 내리지 않고 몇 달 끈것은 좋은 노래

일수록 더 좋게 만들고 싶은 욕심에 서였다고 하시였다. 그러면서 그동안 자신께서 불러도 보다 다른 악단에 곡을 주어 편곡형상한 것을 들려보기도 했는데 확실히 노래가 좋았다고 하시는 것이었다.

작곡가는 가요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를 위해 기울이신 그의 크나큰 신실한 세계가 가슴에 안겨와 저도모르게 눈물이 흘러드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솔로 노래로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는 선율도 좋고 가사도 잘 썼다고, 그런 데 자신께서 노래에 대한 평가를 인자 내리지 않고 몇 달 끈것은 좋은 노래

일수록 더 좋게 만들고 싶은 욕심에 서였다고 하시였다. 그러면서 그동안 자신께서 불러도 보다 다른 악단에 곡을 주어 편곡형상한 것을 들려보기도 했는데 확실히 노래가 좋았다고 하시는 것이었다.

작곡가는 가요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를 위해 기울이신 그의 크나큰 신실한 세계가 가슴에 안겨와 저도모르게 눈물이 흘러드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솔로 노래로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는 선율도 좋고 가사도 잘 썼다고, 그런 데 자신께서 노래에 대한 평가를 인자 내리지 않고 몇 달 끈것은 좋은 노래

일수록 더 좋게 만들고 싶은 욕심에 서였다고 하시였다. 그러면서 그동안 자신께서 불러도 보다 다른 악단에 곡을 주어 편곡형상한 것을 들려보기도 했는데 확실히 노래가 좋았다고 하시는 것이었다.

작곡가는 가요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를 위해 기울이신 그의 크나큰 신실한 세계가 가슴에 안겨와 저도모르게 눈물이 흘러드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솔로 노래로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는 선율도 좋고 가사도 잘 썼다고, 그런 데 자신께서 노래에 대한 평가를 인자 내리지 않고 몇 달 끈것은 좋은 노래

일수록 더 좋게 만들고 싶은 욕심에 서였다고 하시였다. 그러면서 그동안 자신께서 불러도 보다 다른 악단에 곡을 주어 편곡형상한 것을 들려보기도 했는데 확실히 노래가 좋았다고 하시는 것이었다.

작곡가는 가요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를 위해 기울이신 그의 크나큰 신실한 세계가 가슴에 안겨와 저도모르게 눈물이 흘러드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솔로 노래로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는 선율도 좋고 가사도 잘 썼다고, 그런 데 자신께서 노래에 대한 평가를 인자 내리지 않고 몇 달 끈것은 좋은 노래

일수록 더 좋게 만들고 싶은 욕심에 서였다고 하시였다. 그러면서 그동안 자신께서 불러도 보다 다른 악단에 곡을 주어 편곡형상한 것을 들려보기도 했는데 확실히 노래가 좋았다고 하시는 것이었다.

작곡가는 가요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를 위해 기울이신 그의 크나큰 신실한 세계가 가슴에 안겨와 저도모르게 눈물이 흘러드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솔로 노래로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는 선율도 좋고 가사도 잘 썼다고, 그런 데 자신께서 노래에 대한 평가를 인자 내리지 않고 몇 달 끈것은 좋은 노래

일수록 더 좋게 만들고 싶은 욕심에 서였다고 하시였다. 그러면서 그동안 자신께서 불러도 보다 다른 악단에 곡을 주어 편곡형상한 것을 들려보기도 했는데 확실히 노래가 좋았다고 하시는 것이었다.

작곡가는 가요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를 위해 기울이신 그의 크나큰 신실한 세계가 가슴에 안겨와 저도모르게 눈물이 흘러드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솔로 노래로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는 선율도 좋고 가사도 잘 썼다고, 그런 데 자신께서 노래에 대한 평가를 인자 내리지 않고 몇 달 끈것은 좋은 노래

일수록 더 좋게 만들고 싶은 욕심에 서였다고 하시였다. 그러면서 그동안 자신께서 불러도 보다 다른 악단에 곡을 주어 편곡형상한 것을 들려보기도 했는데 확실히 노래가 좋았다고 하시는 것이었다.

작곡가는 가요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를 위해 기울이신 그의 크나큰 신실한 세계가 가슴에 안겨와 저도모르게 눈물이 흘러드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솔로 노래로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는 선율도 좋고 가사도 잘 썼다고, 그런 데 자신께서 노래에 대한 평가를 인자 내리지 않고 몇 달 끈것은 좋은 노래

일수록 더 좋게 만들고 싶은 욕심에 서였다고 하시였다. 그러면서 그동안 자신께서 불러도 보다 다른 악단에 곡을 주어 편곡형상한 것을 들려보기도 했는데 확실히 노래가 좋았다고 하시는 것이었다.

작곡가는 가요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를 위해 기울이신 그의 크나큰 신실한 세계가 가슴에 안겨와 저도모르게 눈물이 흘러드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솔로 노래로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는 선율도 좋고 가사도 잘 썼다고, 그런 데 자신께서 노래에 대한 평가를 인자 내리지 않고 몇 달 끈것은 좋은 노래

일수록 더 좋게 만들고 싶은 욕심에 서였다고 하시였다. 그러면서 그동안 자신께서 불러도 보다 다른 악단에 곡을 주어 편곡형상한 것을 들려보기도 했는데 확실히 노래가 좋았다고 하시는 것이었다.

작곡가는 가요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를 위해 기울이신 그의 크나큰 신실한 세계가 가슴에 안겨와 저도모르게 눈물이 흘러드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솔로 노래로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는 선율도 좋고 가사도 잘 썼다고, 그런 데 자신께서 노래에 대한 평가를 인자 내리지 않고 몇 달 끈것은 좋은 노래

일수록 더 좋게 만들고 싶은 욕심에 서였다고 하시였다. 그러면서 그동안 자신께서 불러도 보다 다른 악단에 곡을 주어 편곡형상한 것을 들려보기도 했는데 확실히 노래가 좋았다고 하시는 것이었다.

작곡가는 가요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를 위해 기울이신 그의 크나큰 신실한 세계가 가슴에 안겨와 저도모르게 눈물이 흘러드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솔로 노래로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는 선율도 좋고 가사도 잘 썼다고, 그런 데 자신께서 노래에 대한 평가를 인자 내리지 않고 몇 달 끈것은 좋은 노래

일수록 더 좋게 만들고 싶은 욕심에 서였다고 하시였다. 그러면서 그동안 자신께서 불러도 보다 다른 악단에 곡을 주어 편곡형상한 것을 들려보기도 했는데 확실히 노래가 좋았다고 하시는 것이었다.

작곡가는 가요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를 위해 기울이신 그의 크나큰 신실한 세계가 가슴에 안겨와 저도모르게 눈물이 흘러드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솔로 노래로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는 선율도 좋고 가사도 잘 썼다고, 그런 데 자신께서 노래에 대한 평가를 인자 내리지 않고 몇 달 끈것은 좋은 노래

일수록 더 좋게 만들고 싶은 욕심에 서였다고 하시였다. 그러면서 그동안 자신께서 불러도 보다 다른 악단에 곡을 주어 편곡형상한 것을 들려보기도 했는데 확실히 노래가 좋았다고 하시는 것이었다.

작곡가는 가요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를 위해 기울이신 그의 크나큰 신실한 세계가 가슴에 안겨와 저도모르게 눈물이 흘러드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솔로 노래로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는 선율도 좋고 가사도 잘 썼다고, 그런 데 자신께서 노래에 대한 평가를 인자 내리지 않고 몇 달 끈것은 좋은 노래

일수록 더 좋게 만들고 싶은 욕심에 서였다고 하시였다. 그러면서 그동안 자신께서 불러도 보다 다른 악단에 곡을 주어 편곡형상한 것을 들려보기도 했는데 확실히 노래가 좋았다고 하시는 것이었다.

하나를 해놓아도 인민들이 덕을 볼수 있게

통천군 일군들의 사업에서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보건사업을 개선강화하는 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고려약 공장들이나 군급이상의 병원들에서만 고려약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많은 기술적 문제들과 필요한 설비들이 해결된 조건에서만 고려약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약초발면적이

고려약생산에서 중요한 것은 약초생산량을 늘리는 것이며 그 러자면 약초발면적을 늘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발면적이 넓어야 싱은 약초의 품종도 다양해질 수 있고 그 생산량도 훨씬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천군 일군들의 사업을 분석해보는 과정에 우리는 약초생산에서 결코 약초발면적이 기여된다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통천군 일군들과 보건일군들이 고려약과 보약생산을 훨씬 늘여 전쟁로 병들과 영예군人們을 비롯한 군내인민들에게 정성껏 공급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20여년전이었다.

불가능하다고 우려를 표시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리유는 군인의 진료소나 병원들에서 조성한 약초발면적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쌍수를 들어 친성한 사람들은 약초발면적을 믿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속 구구를 가지고 있었다. 결국 모두의 생각은 약초발면적에 친중 되고 있었다.

그런데 별장지대인 통천군은 산간지대와 달리 빙장을 염두에 두고는 약초발면적이 아니라 고려약과 보약생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군일군들은 무엇을 믿

기본이 아니다

고방대한 약초생산에 의거해야만 품종을 있는 고려약의 증산 문제를 제기하였는가.

군일군들이 중시한 것은 토지의 리용률을 높이는 것이었다.

걸친 문제를 끊는 비결은 일군들이 현실에 몸을 꿈틀 때 나오는 법이다. 군일군들은 사

련것을 고려하여 단위별로 해당 한 품종들만을 생산하게 한다면 군적인 약초생산을 부쩍 늘릴 수 있었다. 군적으로 약초를 생산하는 단위가 수십개나 된다는 것을 넘도록 때 이것은 고려약과 보약들을 전쟁로 병들과 영예에 생활한 많은 량의 고려약과 보약들에 필요한 모든 품종의 약초를 재활할 수 있는 우점도 가지고 있었다.

일군들은 해당 과학연구기관들을 통하여 품종의 특성을 정확히 분석한 후 기초하여 해당 단위별로 약초품종들을 전문화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면 약초생산이 잘될 것은 불보듯 명백하였다. 실제로 군의 약품판리소에서는 약초를 실현된 땅에 풍광이 나무를 비롯한 약나무를 심어 그에 맞는 품종을 놓았다고 해도 보자라는 약초인민병원에서도 약초밭에 산수유를 기본으로 심은 결과 수확하고 가전에 비하여 훨씬 높아졌다.

토지의 리용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 군일군들이 잘한 것은 또한 배가 단위들에서의 생산계획을 보다 세분화한 것이다. 즉 필요한 고려약들의 원료를 대체로 높이기 위해 약초생산계획을 보다 세분화하여 작성하였다.

군일군들은 뿐만 아니라 군의 토지에서 생산하는 약초들을 100% 보장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사업을 짜고는 것이다.

군에서 약초재배사업을 짜고 들기 시작한 첫해 가을이었다. 모두가 신처럼 쌓인 약초더미를 흐뭇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기뻐하였다. 이 과정에 이들은 매 단위별로 조성한 약초밭의 지력을 서로 차이난다는 점에 주목을 둘려고 되었다.

실례로 어느 한 리인민병원의 약초밭에는 여러 종류의 약초들이 자라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는 고려약과 뿐만 아니라 약초밭면적을 확장하는 데 있어 더 나누기 힘들었다. 그 결과는 그들이 사고방식을 통해 예상한 것과는 달랐다.

이처럼 품평회는 군일군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던 것이다.

이처럼 품평회는 군일군들에게 품평회를 통하여 고려약과 보약을 생산하여 전쟁로 병들과 영예군人们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힘썼던 것이다.

그러면 군일군들은 그 해결방

법을 어디에서 찾았는가. 일군들은 군의 고려약의 대부분은 군교약과 보약으로 생산하는 것으로 되고 말았다.

물론 참가단위는 진료소를

포함한 군안의 모든 보건기관들

이었다.

그들이 이런 사업체를 세워놓은 것은 생산된 고려약이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실지로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매 단위들에서 요구되

는 고려약의 품종은 군적으로

생산되는 고려약품종과 거의 같

았다. 그렇다고 하여 말단치료

예방기관은 자그마한 리인민병

원이나 진료소들에서 그 많은

품종의 고려약을 다 만들기는

곤란하였다.

때문에 군의 약품판리소에서

는 군적으로 생산되는 고려약의

품종과 수량, 매 단위들에서

요구되는 고려약과 수량을

정확히 탄산한데 기초하여 어느

리인민병원에서는 어느 고려약

을 더 만들고 어느 진료소에서

는 어떤 약을 더 만들도록 하였

다. 그렇게 조직사업을 하고도

모자라는 향에 대해서는 군의 약

품판리소가 빌어 생산하도록 하

였다.

이처럼 약품판리소가 매 단

위들의 고려약생산을 통일적으

로 장악지휘를 시도한 편

로 군일군들이 고려약과 보약을

제작하는 힘을 더해나갔다.

군일군들은 품평회를 통하여

</

